

제 1 교시

요즘국어 영역

홀수형

[1~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나 아는사람 #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보게되는게 다시 그
때처럼 안담게 엄마보면 느껴지는걸수도 있는거임?

엄마도?

#강다니엘 : 대한민국 인기 가수.

-작자미상, 「0개국어 구사자」-

(나)

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

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

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

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

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

하려던 애길 어렵게 누르고

그래, 미안해라는 한 마디로

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

달디달고, 달디달고, 달디단, 밤양갱, 밤양갱

내가 먹고 싶었던 건, 달디단, 밤양갱, 밤양갱이야

- 비비, 「밤양갱」-

1. (가)와 (나)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는 시의 특정 부분을 장황하게 서술하여 의미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.
- ② (가)는 마지막 연의 ‘엄마도?’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.
- ③ (나)는 (가)와 달리 비슷한 시어를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다.
- ④ (나)는 대화 상황에 대한 회상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.
- ⑤ (나)는 (가)와 달리 대화 상대를 명시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.

2.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인터넷 커뮤니티에 처음 업로드되어 이 글은 일명 「0개국어 구사자」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.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, 글의 흐름이나 품사의 배치가 자연스럽게 않으며, 잦은 비문이 사용된 모습을 보인다.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글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지,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.

- ① ‘다시보게되는게’를 ‘매력 있게 느낀다’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면, ‘엄마’와 ‘이모’의 매력이 서로 대비되는군.
- ② ‘엄마’를 ‘이모’의 엄마로 해석하면, 화자는 ‘이모’의 엄마를 본 후 다시 ‘이모’를 보았을 땐 강다니엘과 닮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겠군.
- ③ 강다니엘이 ‘이모’와 ‘엄마’를 동시에 닮았을 경우, ‘엄마’는 ‘이모’보다는 강다니엘과 더 닮았다고 생각하겠군.
- ④ ‘이모’를 친분이 있는 여성을 부르는 표현으로 해석할 경우, ‘엄마’와의 연관성은 다소 멀어지겠군.
- ⑤ ‘아는 사람’을 별개의 인물로 해석하면, ‘나’와 ‘아는 사람’, ‘강다니엘 닮은 이모’가 재회하는 상황일 수 있겠군.

3. 다음은 (나)를 읽고,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. 옳게 감상한 학생들을 모두 고르면?

<보 기>

선생님 : 이 시는 여성 화자가 떠나간 연인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 시예요. 이 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

학생ㄱ. 솔직히 예바인 게 남자는 뭐라고 하기만 하는데 여자는 미안해 라고 하면서 관계가 끝남; 이걸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.

학생ㄴ. 솔직히? 화자는 진짜 ‘밤양갱’이 먹고 싶었던 건 아닐거야. ‘밤양갱’은 화자가 연인에게 바랐던 최소한의 관심과 사랑일 수 있겠지.

학생ㄷ. 근데 여자도 문제 아님? 무슨 머리에 불이 나;; 자기 스스로는 책임질 줄 알아야지! 이 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네.

- ① ㄱ ② ㄱ,ㄴ ③ ㄴ ④ ㄴ,ㄷ ⑤ ㄱ,ㄷ